

Theater Review

공연 비평

소리꾼 이자람, 가르시아 마르케스의 작품을 열창하다

정민정

높은 사다리 위 의자로 기타가 오르고 평상 위에 북이 자리한다. 여백의 미가 느껴지는 무대 위로 두루마기를 걸친 소리꾼이 들어온다. 현대판 판소리를 선도하는 작창가(作唱歌) 이자람이다. 소리꾼 이자람에게 무대는 언어를 풀어내는 흰 종이다. 무대는 이자람의 이야기에 따라서 제네바의 골목, 병원이 되었다가 위키피디아나 세계지도의 편린이 되기도 한다.

사실 이자람은 12살에 국악에 입문하여 서울대학교 국악과 학사, 석사 과정을 마치고 박사과정에 진학한 전통 판소리 이수자이다. 게다가 1999년에는 20세의 나이로 8시간에 걸친 춘향가 완창에 성공하여 최연소 춘향가 완창 기록을 기네스북에 올리기도 했다. 하지만 대학 시절부터 이자람은 전통에 머무르지 않고 판소리의 현대화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 그 중 가장 돋보이는 작업은 판소리 고유의 자칫 지루해질 수 있는 모노드라마를 다양한 음악적 장치와 창법으로 변주한 것과, 현대 대중에게 와 닿지 않는 고어를 배제해 현대어로 작창한 것이다. 이런 시도의 일환으로 이자람은 브레히트의 희곡 「사천의 선인」과 「억척어멈과 자식들」에서 착안하여 「사천가」(2008)와 「억척가」(2011)를 성공시켰고, 이런 작품을 통해 현대 판소리를 이끄는 젊은 국악인으로 자리를 굳혔다. 또한 ‘판소리 만들기-자’라는 팀을 만들어 2014년 주요섭의 단편소설 「추물」과 「살인」을 바탕으로 「판소리단편선1_주요섭」을 작창하기도 했다.



이자람 『이방인의 노래』 포스터 (출처: <http://www.sac.or.kr/>)

그리고 같은 해인 2014년 8월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의 『이방의

순례자들』(Doce cuentos peregrinos, 1992)에 수록된 단편 「대통령 각하, 즐거운 여행을」이 「이방인의 노래」라는 제목 하에 이자람의 손에서 판소리로 다시 태어났다.

1. 무엇을 이야기할 것인가

「대통령 각하, 즐거운 여행을」은 잘 알려진 작품은 아니다. 가르시아 마르케스 특유의 '마술적 사실주의'의 색채를 걷어내고 담백하게 풀어낸 이야기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사는 이민자 부부 오메로(Homero)와 라사라(Lazara)는 병원 구급차 운전기사직과 허드렛일을 하며 근근이 생계를 이어간다. 어느 날 이 부부 앞에 전직 대통령이 나타난다. 이 사람은 대통령 직에서 물러난 후 마르티니크로 망명했다가 건강상의 문제로 제네바에 수술을 받으러온 것이다. 혹시라도 장례 상품을 팔 수 있을까하여 오메로는 대통령에게 접근하지만 점심식사에 초대받게 되고, 얼떨결에 답례로 저녁 식사에 대통령을 초대하고 만다. 대통령을 매국노라 여기는 라사라는 이런 사실을 알고 분개하지만 최대한의 예의를 갖춰 대통령을 대접한다. 그리고 그날 부부는 매력적인 신사의 모습을 한 대통령에게서 나라를 군부에게 빼앗긴 죄책감에 시달리는 노인을 발견하게 된다. 또한 대통령의 궁핍한 생활을 목격하고 나서는 연민을 느껴, 없는 돈을 모아 대통령의 수술비에 보태고 간병까지 자처하기에 이른다. 이들의 도움으로 건강을 되찾은 대통령은 마르티니크로 무사히 돌아가게 되고 그곳에서 다시 한 번 무기력을 벗어던지고 새로운 도약을 꿈꾸게 된다.

즐거리만 놓고 본다면 「대통령 각하, 즐거운 여행을」은 큰 사건이 없는 단조로운 이야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자람은 이 작품을 판소리화하기로 결심한다. 그 이유는 이자람이 직접 공연 머리말에 직접 밝히듯이, “머나먼 콜롬비아에서 온 작가(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의 글을 읽다 낮잠에 들었는데, 깨어난 뒤에도 그 이야기가 잔잔히 가슴을 아려”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이방인의 노래』는 이자람의 이전 작품과 궤를 달리한다. 이자람은 가르시아 마르케스의 작품을 선택하게 된 계기와

다른 작품과의 차별성에 대해 『Scene Play Bill』 2015년도 7월호 인터뷰에서 직접 밝힌 바 있다.

[중략] 「사천가」와 「억척가」 이후 많은 창작 판소리가 만들어졌는데 대부분이 판소리의 극성과 그로테스크함이 부각되는 작품들이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그런 판소리에 지쳤고, 판소리가 편할 수는 없을까, 울고 짜거나 신명나지 않아도 되는, 부담 없이 볼 수 있는 장르가 될 수는 없을까를 고민하게 됐다.

이전의 이자람의 작품은 화려한 볼거리였다. 뮤지컬 같은 무대 연출과 더불어 여러 타악기와 기악 앙상블 세션을 기용한 무대 위에서 소리꾼은 두 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수십 명의 역할을 한 몸에 담아냈다. 하지만 이번 공연에서 이자람은 모든 것을 축소시켰다. 이야기의 길이와 무대 장치를 간소화하고 화려한 악기를 배제하고 북과 기타 반주 위에 목소리를 얹었다. 덕분에 관객은 기존의 판소리에서 느끼던 장거리 마라톤 같은 부담감을 덜면서 판소리 고유의 ‘소리’ 자체에 가까워질 수 있었다.

이야기의 무게도 가벼워졌다. 「사천가」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선(善)하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의문을 던지고, 「억척가」는 전쟁 같은 세상에 희생되는 개인을 다루었다. 이 두 편의 판소리가 모순적 사회로 인한 개인의 비극을 표현했다면, 「이방인의 노래」는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민중의 정(情)과 연대감에 주목했다.

이 과정에서 이자람은 가르시아 마르케스의 「대통령 각하, 즐거운 여행을」의 지역성은 과감히 삭제하고, 보편성을 한국인의 정서에 맞게 부각시킨다. 12편의 단편으로 구성된 『이방의 순례자들』은 유럽 대륙에서 이방인으로서 살아가는 중남미인의 애환을 다루고 있다. 여기서 가르시아 마르케스는 중남미를 전근대적이라 보는 유럽인의 시선에 맞서 유럽의 근대화된 도시를 삭막하고 황량하다고 느끼는 중남미인의 시선을 드러낸다. 중남미는 생명력과 인간성이 넘치는 공간으로 그려진다. 그래서 그곳을 떠난 중남미인은 죽음과 같은 고독에 직면하게 된다. 이 난관을 극복하는 방법은 중남미인 간의 끈끈한 유대이다.



페르난도 보테로, 「대통령」. 보테로 역시 가르시아 마르케스와 마찬가지로 콜롬비아에서 태어나고 콜롬비아를 사랑하는 화가이다.(출처: <http://el-bloq.blogspot.kr/>)

「대통령 각하, 즐거운 여행을」은 또한 중남미의 정치적 상황을 암시한다. 대통령은 군부 쿠데타로 인해 망명길에 오른 인물로 정치 활동 중 아들을 잃은 상처를 가지고 있다. 군부 정권은 축재라는 누명을 씌워 대통령을 음해한다. 라사라는 이러한 언론의 거짓 기사를 믿고 살아온 여성이다. 특히 이 작품이 완성된 것이 1979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1973년에 있었던 아옌데 대통령 피살을 떠올리게 한다. 대통령은 유럽에 사는 중남

미인의 애환을 느끼고 그럼에도 인간성을 상실하지 않은 면모를 체험하며 사회 개혁 의지를 되찾는다.

하지만 이자람의 「이방인의 노래」에서는 이러한 중남미적 특수성은 발견하기 어렵다. 그 대신에 이 이야기가 한국인에 국한시키지 않고 현대 세계인 누구에게나 다가갈 수 있도록 민중의 보편적 정서에 초점을 맞췄다. 브레히트를 각색할 때엔 유럽의 배경을 판소리에 맞추기 위해 「적벽가」의 한 대목으로 옮겨놓거나 한국으로 무대를 변경했지만, 「이방인의 노래」는 제네바라는 무대를 살려두었다.

한국 관객에게 제네바에 사는 콜롬비아인은, 이자람이 공연에서 위키피디아를 참조해 설명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먼 나라의 이방인이지만 그들에게 일어나는 사건은 한국인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과 별반 다르지 않다. 점점 더 삭막해져가는 도시에서 곁에 있는 이들도 이방인으로 느끼며 살아가는 현대인 역시 비슷한 고독에 처해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먼 이방인의 노래를 듣는 관객 역시 가슴이 먹먹한 사람 사이의 정을 떠올리게 된다. 그래서 우리 역시 무대의 꿈에서 깨어나면 오수에서 깨어난 소리꾼의 마음에 가르시아 마르케스의 작품이 남긴 따뜻함을 느끼게 된다.

2. 어떻게 이야기할 것인가

민중의 희로애락을 함께 나누는 이야기꾼인 소리꾼이 한국에 있다면, 스페인어권에도 유사하게 노래를 통해 민중과 이야기를 나누는 이야기꾼이 있다. 바로 음유시인 트로바도르(Trovador)이다.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는 자신의 대표 소설 『백 년 동안의 고독』에서 트로바도르를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몇 달이 지난 다음에, 나이가 거의 2백 살이나 되고 자기가 지은 노래를 나눠 주면서 가끔 마콘도 마을에 들르던 현인 프란시스코가 돌아왔다. 현인 프란시스코는 그의 노래를 통해서 그가 이곳으로 오던 중에 들른 모든 곳, 마나우레에서부터 늪지대까지 거치는 동안 들은 소식을 전해 주었으며, 남에게 알려줄 소식이나 전할 말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5센트

만 내면 그 얘기를 자기가 부르는 노래의 끝에다 첨부시켜 주겠다고 말했다. 우르슬라는 혹시 고향을 떠난 아들 호세 아르카디오의 소식을 들을까 해서 그의 노래에 귀를 기울였다가 자기 어머니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¹⁾

이 대목에서 등장하는 프란시스코는 프란시스코 엘 옴브레(Francisco el Hombre)로, 콜롬비아의 전설적인 트로바도르다. 과장되게 이백 살 먹은 노인인 것처럼 그려지지만 『백 년 동안의 고독』이 중남미의 역사를 마콘도 백 년사로 줄여서 표현한 것을 고려하면, 이백 살이라는 프란시스코의 나이는 뿌리 깊은 전통의 역사를 대변한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망각의 병이 마콘도를 덮쳤을 때, 프란시스코는 도망치고 병이 지나가고 나서야 마콘도로 돌아온다. 민중적 담화를 물려오는 이야기꾼은 과거의 전통을 잇는 기억을 상징하기 때문에 여러 외압에도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대목이다.

이렇듯 가르시아 마르케스는 구전되는 집단적 기억의 존재를 긍정했다. 그의 글쓰기 속에 그로테스크함, 과장, 해학 등의 구어적인 특성이 돋보이는 것도 유년기에 들은 조부모의 토속적인 이야기 방식에 큰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스스로 밝힌 바 있다.

가르시아 마르케스의 소설을 판소리로 옮기는 작업은 장르, 언어, 문화 이 모든 것을 송두리째 바꾸는 일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르시아 마르케스 특유의 화법을 사랑하는 독자에게 이 변화가 낯설게 느껴지지 않는 것은, 두 이야기꾼이 전통적인 이야기 방식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가르시아 마르케스가 민중의 설화적 화법을 근대적인 사실주의적 묘사 속에 흡수시켜 현대적으로 재창조해냈다면, 이자람 역시 판소리의 해학적인 이야기 방식과 현대적인 예술을 혼합하여 판소리의 현대화를 꾀했다.

사실 근대화의 물결 속에서 판소리는 다가가기 어려운 장르였다. 프랑스 외교관이 판소리가 궁금하여 「춘향가」 완창을 주문했다가 이해도 안 되는 소리를 장장 8시간에 걸쳐 듣느라 곤욕을 치렀다는 우스갯소리가 있

1)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 『백 년 동안의 고독』, 안정효 옮김, 문학사상사, p. 63.



『이방인의 노래』 공연 중 (출처: <http://www.facebook.com/panmanza>)

을 정도다. 전통적으로 민중의 희로애락을 함께한 판소리는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 사회에 발맞추지 못하고 전통의 영역에만 머물렀기에 대중으로부터 멀어졌다. 그리고 이것은 쇠락의 길로 접어드는 것을 의미했다.

이러한 판소리의 현대화에 앞장서는 젊은 소리꾼들은 대중과 소통할 수 있는 이야기 방법을 고심해왔다. 내용의 측면에서 현대 대중의 고민을 담아내는 것도 중요했지만 볼거리를 찾는 관객을 고려해 전통 판소리가 가진 형식적 요소(돛자리라는 한정된 공간과 경직된 자세)에도 변화가 필요했다. 다시 말해 연극, 뮤지컬과의 교류, 다양화된 배경 음악의 도입, 구어의 사용 등은 모두 현대 관객에게 더 효율적인 방식으로 이야기를 전달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다. 이자람 역시 “소리꾼으로 어디를 향해갈지, 어떤 무대에, 어떻게 서야 할지를 깊이 고민”하고 이번 공연을 기획했다고 한다.²⁾ 그래서 라사라가 하층민의 슬픔을 노래할 때는 중남미인의 느낌을 살리기 위해 기타 반주에 가요 창법의 노래를 얹고, 무대를 쏘다니며 연극적인 몸짓과 목소리로 인물을 표현해낸다. 그렇게 소리꾼이 과장과 익

2) 2016년 4월 18일 『뉴시스』와의 인터뷰.

살스러움으로 질박하게 이야기를 풀어내는 모습은 가르시아 마르케스의 글쓰기와 닮아있다.

판소리 공연은 소리꾼의 재능과 이야기의 훌륭함만으로는 완성되지 않는다. 축제 판이 벌어지기 위해서는 관객의 즉흥적인 참여가 동반되어야 한다. 소리꾼 이자람은 자신이 뿌리를 둔 전통 판소리의 특징을 유지시키면서 동시에 고습적인 색채를 벗기고 현대 대중이 참여할 수 있는 마당이 되도록 우리에게 익숙한 방식의 이야기 전달 방법을 채택했다.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의 「대통령 각하, 즐거운 여행을」은 1970년대에 완성된 단편이다. 70년대 중남미의 정치적 불안과 망명자의 삶은 현대 대중에게 낯설 수 있다. 그리고 볼거리를 찾는 대중에게 문학의 전달방식은 점점 소원해지고 있다. 이자람의 「이방인의 노래」는 전통 판소리를 현대 대중에게 다가가게 만들면서 동시에 70년대에 생산된 이야기에서 현대 관객들이 공감할 수 있는 지표를 간추려내었다. 이야기의 내용과 전달 방법 모두를 현재화하는 데 성공한 것이다. 가르시아 마르케스는 『이방의 순례자들』의 서문에서 다음과 같이 밝힌다.

후회의 두려움 때문에 내 작품 중 어떤 것도 다시 읽지 않았듯이, 의구심으로 내 작품을 다시 읽지도 않을 것이다. 내 작품을 읽는 사람은 작품으로 무엇을 할지 알 것이다.

하나의 이야기는 거듭 재창조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가르시아 마르케스 역시 자신의 작품이 완성본이 아닐 수 있다는 의구심에 다시 자신의 책을 읽지 않을 것임을 인정한다. 이야기는 그 이야기를 듣는 독자 또는 관객이 있을 때만 그 존재의 가치를 인정받는다. 그렇기에 변화하는 독자에 맞추어 자신의 형태를 변화시킬 잠재성을 지닐 수밖에 없다. 현대 한국 독자의 구미에 맞게 「대통령 각하, 즐거운 여행을」을 「이방인의 노래」로 읽어내는 이자람은 이 시대의 소리꾼이자 이야기꾼이다.

정민정 — 고려대학교 대학원 재학